# 새해 벌써 2조 잭팟… 해외수주 고삐, 시공력 1위 탈환

건설, 飛上 2020 전략

**현대건설**

**1월에만 알제리 등서 2.1조 수주**
**작년 넘어 올 5조 이상 수주 기대**
**올 21곳서 2.1만가구 공급 계획**
**박동욱 사장, 1조클럽 재진입 목표**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현대건설 서울 계동 사옥.

현대건설은 새해 벽두부터 해외 수주 낭보가 이어졌다. 해외부문 성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21개 현장에서 아파트 2만1000여가구 주택 공급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에선 1위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북아프리카 지역 알제리에서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1월에만 약 18억달러(약 2조1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4일 알제리 국영 전력청 산하 자회사인 하이엔코에서 발주한 총 7억3000만 달러(한화 약 8500억원) 규모의 '우마쉐3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계약했다.

또한 카타르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주한 6093억원 규모의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3 공사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 지난 2일 새해 첫 해외수주 포문을 연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4' 총 6130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알제리·카타르 등 해외수주 시작**

현대건설은 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개최 예정인 루사일 지역에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와 랜드마크 수주에도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8년 3월 박동욱 사장을 선임한 후 상승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사장은 1988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33년차 '현대맨'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대건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으며 현대차그룹 내에서 '재무통'으로 불리던 그의 사장인사는 당시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박 사장은 취임 직후 2017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영업현금흐름(-391)을 다시 플러스로 복구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한 재건축 수주와 해외사업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취임 2년차를 맞아 새로운 경영전략 '그레이트 컴퍼니'를 내놓으면서 수주목표 24조원 달성과 영업이익 1조원 클럽 재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해 해외사업에서 신규수주 40억 달러(한화 4조7000억원)로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수주금액을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이미 해외시장에서 1조원 이상을 수주한 만큼 올해에는 지난해를 넘어선 5조원 이상의 수주가 기대된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분야에서도 신규수주 2조8300억원을 기록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이 분야 수주 1위 자리도 되찾았다.

올해는 삼성물산에 내준 시공능력평가 1위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평가액 11조7400억원으로 2위를 기록해 5년째 1위 삼성물산(17조5200억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1위를 한 데 이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최근 현대건설이 신규수주물량, 수주 잔고에서 삼성물산과의 격차를 꾸준히 벌려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위자리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둔촌주공 등 올 2만1089가구 공급**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올해 21개 현장에 2만1089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목표 물량은 총 1만6246가구였다. 실제로는 1만2751가구를 분양하며 목표대비 달성률 78.4%를 기록했다.

올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남은 물량을 더해 전년 대비 23% 늘어난 분양 목표를 세웠다.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일반분양은 1만1704가구, 조합물량은 7417가구, 오피스텔 등 기타물량은 1968실이다. 현대건설이 총 21개 현장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곳은 5곳이며 자체사업 현장도 2곳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곳, 기타 수도권이 6곳이며 지방은 대전과 대구 등 10곳에서 분양 예정이다.

현대건설의 올해 상반기 일반분양 물량은 총 8068가구다. 먼저 2월에는 ▲백운2재개발(인천 부평) ▲송도 더스카이(인천 송도) ▲도원 센트럴(대구 도원동) ▲광주 첨단지구 주상복합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3월에는 ▲대구 봉덕새길 재건축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을, 4월에는 앞서 언급했던 ▲둔촌주공 재건축(서울 강동구) ▲대구 동인동 주상복합 ▲레이크 송도 3차(인천 송도) 분양이 예정됐다.

5월에는 청양리 미주상가 오피스텔(서울 동대문구) ▲광주 삼동 1지구 ▲의정부 주상복합 ▲대전 갑천1블록이 분양을 준비 중이며 6월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주상복합 분양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고덕강일지구 5블록(서울 강동구) ▲대구역 오페라(대구 고성동) ▲개포1단지 재건축(서울 강남구) ▲광주 신용동 지역주택조합 ▲인천 계양1 재개발 ▲화성 봉담(민간임대) 등의 현장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계획은 상·하반기에 각각 한 곳씩 예정됐다. 6월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서울 금천구), 12월 구리 갈매지구 자족유통시설 등이다. 현대건설의 올해 분양은 매머드급 단지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로 분양이 미뤄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4월 중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화제가 된 단지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말 분양이 예정됐으나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획이 발표되며 분양이 올해로 미뤄졌다. 오는 4월 2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 규제가 시행되며 둔촌주공의 분양 시기는 그 이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GS건설 '자이 아파트', 올 2.5만 가구 공급

**서울 6500가구, 수도권 1.1만가구**
**대구·속초 등 지방 여러곳에도 공급**

개포프레지던스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GS건설

GS건설이 올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2만5000여 가구의 자이 아파트를 공급한다.

GS건설은 2020년 전국적으로 2만5641가구의 자이(Xi)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GS건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분양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2020년 공급계획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약 6500여 가구(25.6%), 수도권 1만1700여 가구(45.9%) 및 지방 7300여 가구(28.5%)를 공급한다. 이처럼 올해는 부산, 대구, 속초, 울산, 광양 등 서울, 수도권에 집중됐던 지난 해와 달리 지방 여러 곳에도 자이 아파트가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약 1만1600여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45.5%, 외주사업은 1만900여 가구로 전체의 42.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해 GS건설이 매입한 인천 송도 6공구 A10블록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를 연말 분양 계획인 점이 눈에 띈다.

외주사업 가운데 속초 디오션자이, 고양덕은지구 A4, A6, A7블록 등이 눈여겨볼 만한 단지다.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속초시 최고층 아파트 속초디오션자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 84~131㎡ 총 454가구 규모로 속초항과 인접해 대부분 가구에서 동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도심에 위치해 각종 기반시설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장점 등 조망과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속초내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을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개선으로 외부 투자자의 관심도 높다.

고양시 덕은지구 3개 블록에 총 1600여 가구 규모의 자이 아파트가 공급된다. 덕은지구 A4블록에 지하2층~지상24층 6개동 전용 84㎡~99㎡ 702가구, A7블록에 지하 2층~지상24층 5개동 318가구, A6블록 지하2층~지상24층 7개동 6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개 블록이 모두 들어서면 자이(Xi) 타운이 형성돼 마포, 반포와 같은 브랜드타운의 명성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수원 영통구에 들어서는 영통자이, 울산서부동공동주택 등 외주사업뿐만 아니라 ▲흑석3구역 ▲수색6,7구역 ▲장위4구역 등 서울시내 굵직한 도시정비사업으로도 자이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 주택연금 月 수령액 1.5% 늘어난다

**주금공, 내달 3일 신청자부터 변경**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금공은 매년 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2월 3일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늘어난다. 이는 작년 말 발표된 기대수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자율은 지속 하락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입연령별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60대 3.9% 증가 ▲70대 1.4% 증가 ▲80대 0.5% 감소 ▲90대 1.0% 감소한다. 또 주택가격별 월수령액은 평균 ▲3억원 2.3% 증가 ▲5억원 2.3% 증가 ▲7억원 1.0% 증가 ▲9억원 0.7% 줄어든다.

/김희주 기자 hj89@

# NH투자증권, ELS 6종 460억 한도 판매

NH투자증권은 오는 17일 오후1시까지 6개의 주가연계증권(ELS)을 46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약을 시작하는 ELS 19093호는 에스엔피 500지수(S&P500), 홍콩H지수(HSCEI), 유로스톡스50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만기는 3년, 조기상환평가 주기는 매 6개월로 조기상환 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 대비 87%이상(6/12개월), 85%이상(18/24개월), 80%이상(30개월), 75%이상(만기)이면 연4.80%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ELS 19095호는 미국 주식 디즈니(Walt Disney)와 엔비디아(NVIDIA)에 투자하는 45 저낙인 상품이다. 미국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안정적인 45낙인 구조에 연 9.0% 수익률이다.

청약은 NH투자증권 전 영업점 및 NH투자증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각 상품별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